

14. 승지공파(承旨公派)

원미 元美, 3세, 덕수의 차남, 순천玄씨 시조, 영동정순천부원군(令同正順天府院君)

충수 忠守, 6세, 승지공파 중시조, 승지(承旨)

휘(諱)는 수(守)또는 수(粹) 문과관(文科官), 승지동정(承旨同正)으로 족보에 기록되어있다.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자 元烈 원렬 太僕尹 태복윤 고려 충렬 왕 1290	敬興 경여 典客令 전객령	嶽(금) 左贊成 좌찬성	1자 致龍 지룡 都僉議寺事 도첨의사사 2자 繼龍 계룡 令同正 영동정 瑞龍 서룡 左丞宣 좌승선	星州牧使派성주목사공파/南海縣令派남해현령공파/(全州)判官公판관공파/進士公派진사공파/司評公派사평공파/判尹公派판윤공파/昭威將軍公派소위장군공파 僉正公派첨정공파/義良公派의랑공파/府尹公派부윤공파/保功將軍公派보공장군공파/兵使公派병사공파 左承宣公派좌승선공파(서룡공)								
玄覃胤 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景惠公경헌공 고려의종, 명종대 (1170-90년대)	德秀 덕수 상서공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 1215년卒	2자 元美 원미 令同正 順天府院君 영동정 순천부원군	甫보 令同正 영동정	秉性 병성 判少駙馬 판소부마	忠守 충수 承旨 승지	成성 五衛將 오위장	光壽 광수 版圖判書 판도판서	之佑 지우 典客副令 전객부령 고려공민왕 조선태조대 (1370-90년대)	인량 仁亮 節度使 조 선 세조대	자강 自強	유裕	규圭	소 종 紹宗 (1500~	적복 積福 남촌공 현은산일기 율곡李珣교류 송강鄭澈

적복 積福, 15세, 충수의 9세손, 남촌공, 하양 현감, 은산 현감,

조선 중기 황해도 출신의 문인. 자 성중(誠中), 호는 남촌(南村). 1521년(중종中宗 16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나 장성한 후 서울로 유학을 떠났고, 1580년 경상도 하양 현감, 1590년 평안도 은산 현감 등을 지냈다. 율곡 이이와 교유하였으며 송강 정철과 상소문으로 다투었다. 선조 34년(1601년) 辛丑년, 족보상 현종때 신축년췌이나, 이는 1661년이므로 오류)에 81세로 돌아가셨다. 자헌대부(贈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 명종 13년인 1558년부터 선조 33년인 1600년까지 약 42년간 쓴 일기인 <현은산일기> 총 6권이 남아 있으며 현재 북한에 소장되어 있다.

* 현은산일기 : 현적복이 관직에 재직 중이던 1558년부터 1600년까지 쓴 일기로 황해도 지방 고유의 모내기 방법, 임진왜란 당시 재정 문제, 16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행정 조직, 당시 벌어졌던 이몽학의 난에 대한 서술, 임궫정이나 길삼산 등의 행적, 당시 수공업과 농업의 발전상, 당시 주민들의 생활상 등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원본이 북한에 소장되어 있어 이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민족문화 유산 현은산 일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적

북이 1558~1600년 썼다는 이 일기가 “그 내용과 규모로 보나 지금까지 전해오는 일기들 가운데서 제일 큰 것”이라며 그중 6권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소개했다. 중앙통신은 이 일기가 “이조 봉건국가의 사회경제 형편과 지방통치 제도, 당시의 문학, 언어학, 역사지리, 생활풍습, 미풍양속 등을 연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주로 초서체로 쓰였고 약자와 속자(획을 간단하게 만든 한자), 이두(吏頭) 문자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현은산 일기는 본기와 별기로 구성돼 있으며, 본기에는 주로 현적복의 개인 생활과 친분 관계, 별기에는 여러 가지 특기사항이 각각 서술돼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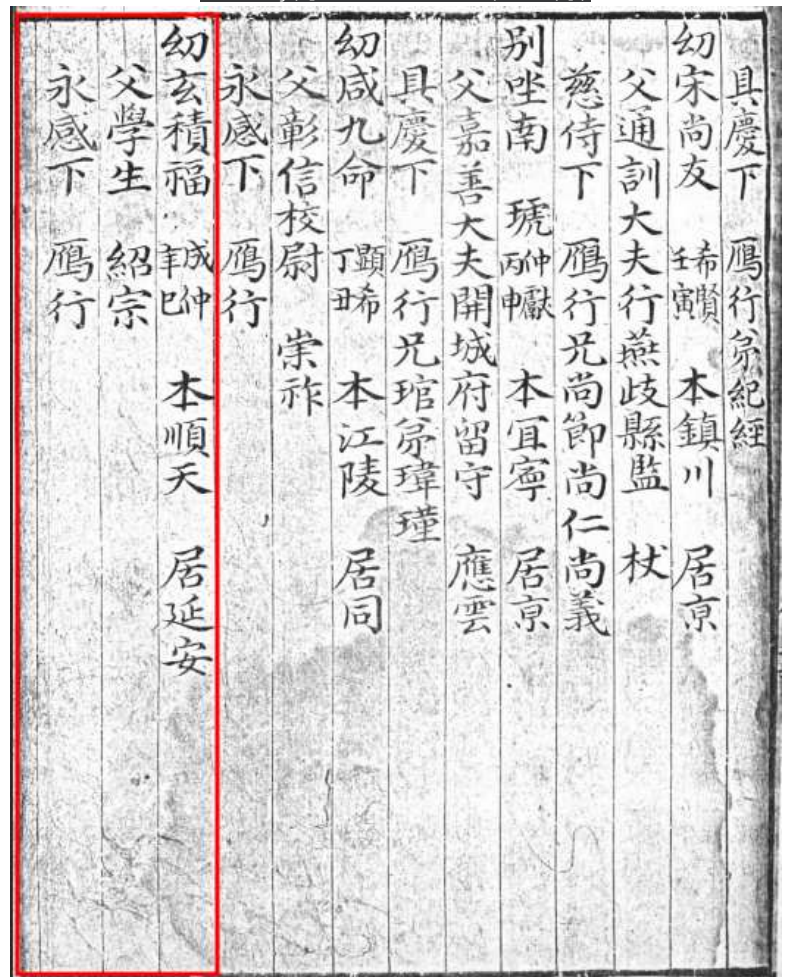
현적복의 증광시 진사 합격 기록

[진사] 선조(宣祖) 1년(1568) 무진(戊辰)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45위(75/100)

자(字) 성중(成仲)
 생년 신사(辛巳) 1521년 (중종 16)
 합격연령 48세
 본인본관 순천(順天)
 거주지 연안(延安)
 선발인원 100명 [一等5 · 二等25 · 三等70]
 전력 유학(幼學)
 부모구존 영감하(永感下)

[부(父)]
 성명: 현소종(玄紹宗)
 관직: 학생(學生)

『용경2년무진년증광사마방목(隆慶二年戊辰年增廣司馬榜目)』 (하버드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K 2291.7 1746(1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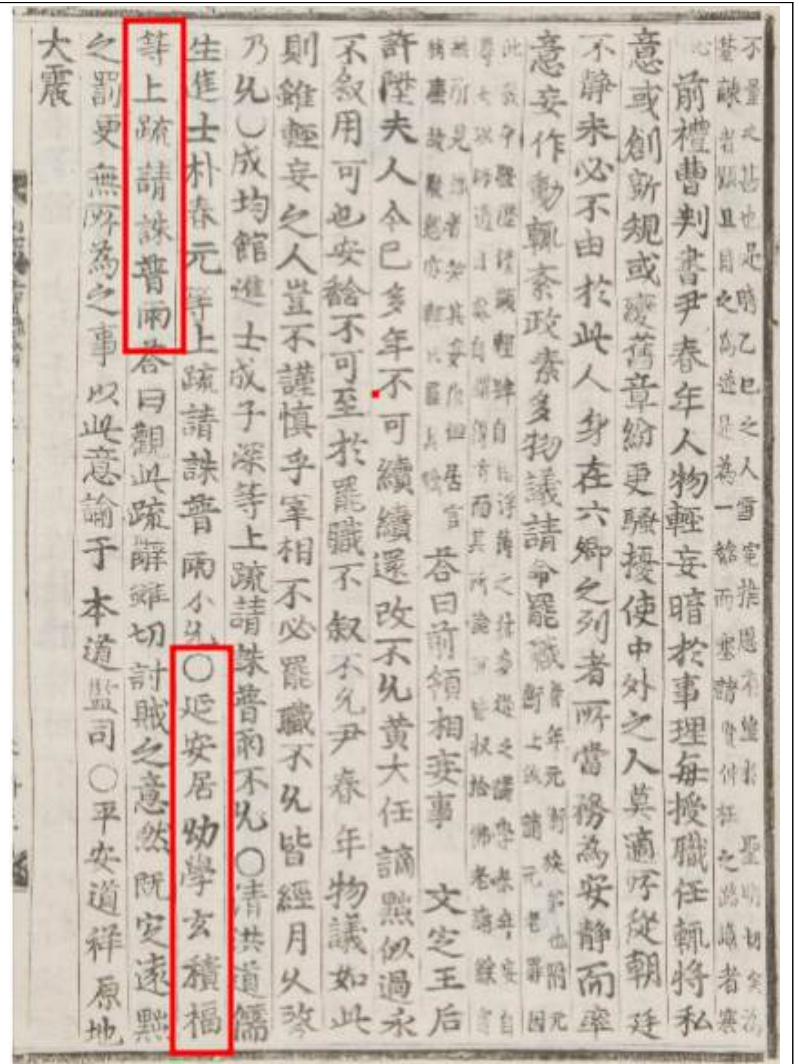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명종 20년 을축(1565) 8월 27일(신묘)

연안 유학 현적복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하다

연안(延安)에 거주하는 유학(幼學)현적복(玄積福)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하니, 답하였다.
 “이 소장을 살펴보니 적(賊)을 토멸하

려는 뜻이 간절하다. 그러나 이미 멀리 귀양보내는 것으로 정죄(定罪)하였으니 다시 하는 짓이 없을 것이다. 이 뜻을 본도(本道) 감사에게 효유하라.”



증이조판서남촌공행장(贈吏曹判書南村公行狀)에 보면 (요약)

순천군(順天君) 휘(諱) 원미(元熹)의 13세손 이다. 연안성외서부(延安城外西部)의 종가(宗家)에서 출생하셨다.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하고 경례학(經禮學)을 강구(講究)하는 데 힘쓰시고 노력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셨다. 모친상을 당하시게 되니 슬피 우시는 소리와 슬퍼하시는 얼굴빛이 조상(弔喪)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케 하였으며, 장례 후 집에 돌아오시지 않으시고 묘소 옆에 여막(廬幕)을 지으시고 이어 그곳에서 사시며 묘를 수직(守直)하는 동시 조석으로 호곡(號哭)하시는 소리에 행인들이 감동치 않은 사람이 없었다. 울곡(栗谷) 이선생(이이李珣)이 또한 해주(海州) 오고 가는 길에 찾아오셔서 대화하심으로써 도의로 교분을 맺으셨으니 이후로부터 효행과 경학(經學)이 장하시다는 명성이 지역사회에 자자(藉藉)하여 유림(儒林)들이 다 같이 추중(推重)하였으며, 서기 1524년 경신(庚申)에 서울에 들어가시어 성균관에 수개월 동안 체류 시 유생(儒生)과 사학(四學; 지금의 초·중·고등학교)의 유생들이 서로 찾아와서 경례하고 중의(衆議)를 모아 정부에 공천(公薦)

하니 생원이나 진사가 아닌데 입재천(入齋薦)에 뽑히는 것은 고래로부터 없었던 일이었다. 서기 1544년(임술년(壬戌年) 겨울에 조정중신(朝廷重臣)들이 지극하신 효성을 포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왕에게 주달(奏達)하니 왕께서는 예관(禮官)을 특파하시어 공이 사시는 동리에 정려를 세우셨다. 이 해 7월에 공릉(恭陵; 장순왕후章順王后의 릉) 참봉(參奉)으로 제수(除授)되셨다. 서기 1556년 을해(乙亥)봄에 평양 영숭전직(永崇殿直; 종7품)으로 차출(差出)되셨으며 이 해 겨울에 풍저창봉사(豐儲倉奉事; 종8품 나라창고 관리자)로 전임(轉任)하시고, 또한 서기 1559년 무인(戊寅) 겨울에 상의원(尙衣院; 관복을 만드는 곳) 직장(直長; 종7품)으로 천임(遷任)하셨다. 서기 1561년 (경진(庚辰) 여름에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 종6품상(上)으로 오르셨으며 이 해 가을에 하양현감(河陽縣監; 정6품)으로 전임(轉任)되셨을 때 별도로 학사(學舍)를 설립하고 작성재(作成齋)라 명명하시어 매월 십수인씩 선발)하시되 기소요경비(其所要經費)는 국고에서 지출하셨다. 서기 1565년(갑신(甲申) 겨울에 잠시 휴직하셨다가 서기 1570년(기축(己丑) 봄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정6품)로 복직하셨다가 다시 서기 1571년(경인(庚寅) 봄에 은산현감(殷山縣監)으로 나아가셨다. 서기 1572년(신묘(辛卯) 봄에 성왕께서 재앙을 만나시자 그 충언을 구하시니 부군(府君)이 성상(聖上)의 뜻에 맞추어 세자책봉(世子冊封)에 관한 소장(疏章)을 진개(陳開)하셨다. 서두(序頭)부터 끝까지 간절한 말로써 임금께 간언하여 헌책(獻策; 할 수 있는 근본방침根本方針)을 얻고자 하는 상소장(上疏狀)을 봉정(奉呈)했다. 잠시 후에 송강(松江) 정정승(鄭政丞; 정철)이 단독으로 세자를 책봉하자는 소장(疏狀)을 올리자 임금이 견책(譴責,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을 하신 후에야 비로소 충신들이 나라를 위하여 깊이 우려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공의 상소문이나 정송강(鄭松江) 상소문이 상부(相符, 차이差異가 없음)된 것을 보게 된 까닭이다. 이 해 겨울에 벼슬을 사양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자 평소의 병환이 악화되시어 향년 81세로 4월 24일에 손관(損館, 사대부가 사망한 것)하시어 봉옹산 임좌원(鳳囓山壬坐原)에 장례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셨으며, 예학(禮學)을 깊이 연구하시어 가례(家禮)의 사당조례(祠堂條例)를 저술하여 후세에 남기셨다. 해마다 쓰신 일기장을 보면 임진(壬辰) 계사년(癸巳年)에 기록하신 것은 일기(日記) 머리에 임금께서는 어디 계시며 국가에는 아무 연고(緣故)가 없는지를 쓰신 후에 당신의 사사(私事)를 쓰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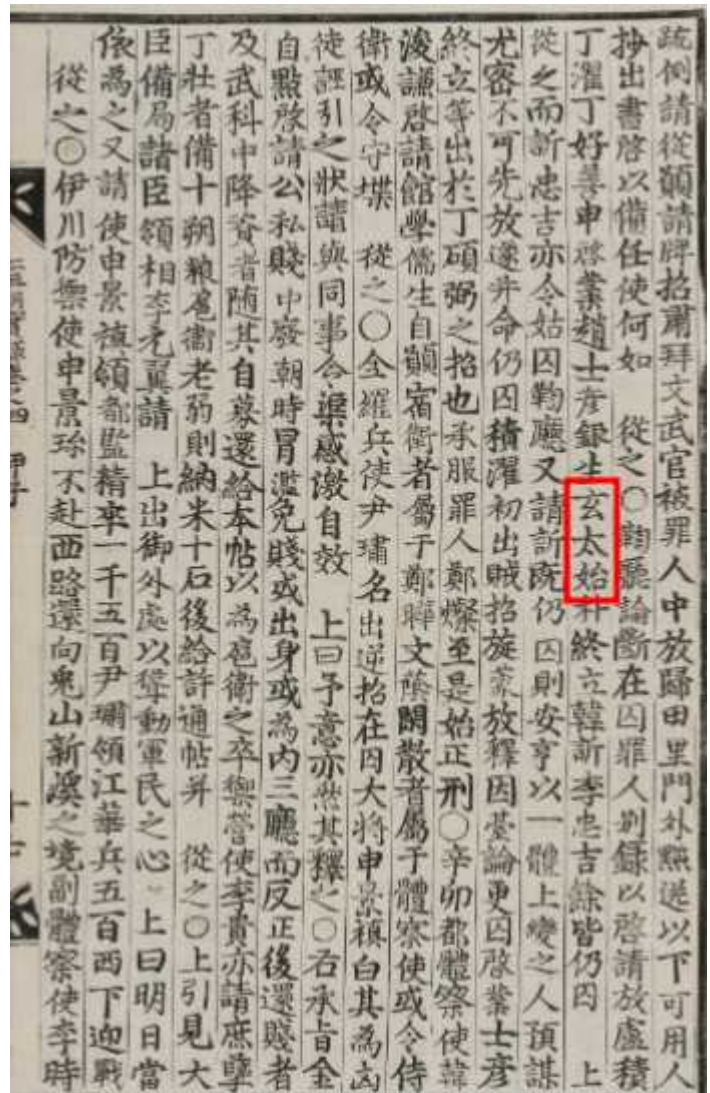
5대손(五代孫)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광우(光宇)는 근서(謹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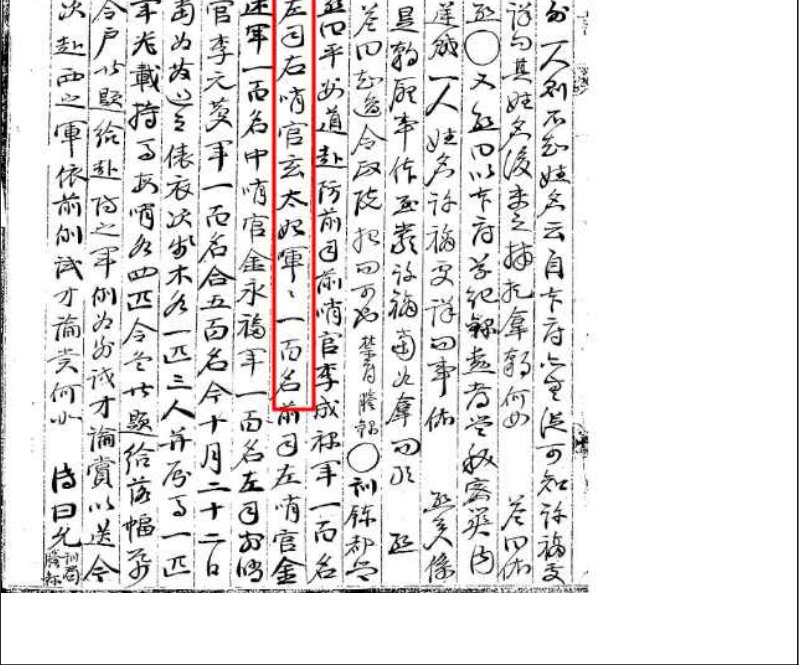
45.贈吏曹判書南村公行狀 府君諱積福字誠中自號追遠堂晚稱南村遼叟高麗毅宗朝門下侍郎平章事諱草胤之十五世孫順天君諱元蒸之十三世孫也諱紹宗居家有至行二十六早卒後 贈兵曹參判憲府君之先考也妣龍仁李氏將仕郎茂女工曹典書彦曾孫以正德辛巳十二月三十日生府君于延安城外西部之宗家自幼愛親之誠根於天賦乙酉遭先考喪時年纔五歲已有哀慕之發於中者稍長至誠事母夫人承奉之節服勤之勞出自中心無一毫勉強底意人皆以天生孝子目之十五慨然有求道之志所自期者不在於凡儒俗學之間晨昏之暇沈潛性理之書講究經禮之旨日勉勉不已且自念三世天閭之除門戶日替苟非科第之成名則無以振衰運而慰親心兼復致力於公車之業文賦各體亦臻鍊熟而未嘗以科舉累其心戊申丁內艱哭泣之哀顏色之減不特弔者之悅而已葬後不爲返虞仍守廬于墓側在邑下咫尺日夜號哭之聲感動行路凡朝夕上食必躬自炊爨常沐浴致齋于墓下川故至今邑人號其川曰致齋是時道伯聞其善居喪躬造致禮秉公李先生亦於海州來往之路歷訪話仍爲道義之交自後孝行經學之名播諸中外大爲儒林所推重庚申有事八閩留泮中數月太學東西齋及四學儒生爭來致敬仍合辭公薦非生進而入齋薦從古所無而聲望之素孚於人此可見也壬戌冬 廷臣以至孝 奏達請行褒美之典自 上特命遣禮官 旌闕于所居之家在世時 旌闕乃曠殊榮也是歲七月擬光陵參奉未受點尋 除恭陵參奉以不仕沽名爲耻即日上京肅肅隨例入直朝夕登冠服上 陞省擢不避雨雪日以爲常約東山直護養樹木而間三日親自巡山省視之至如疏濬井泉修掃祀廳等節皆有程課未嘗暫離齋舍必靜坐讀書以終日七年如一日乙亥春移差平壤永崇殿直是冬遷置儲倉奉事戊寅冬遷尚衣院直長前後二司皆公上進排之地而恪勤奉公咸得體裁長官比僚無敢非義干之庚辰夏陞受司僕寺主簿是年秋 除河陽縣監爲政廉而簡勤而謹尤以恤民隱崇儒學爲本別構學舍名曰作成齋每月選儒生十數人使之居處做業傾廩以供之五年間文化蔚興甲申冬遷遷己丑春復職爲司憲府	廢考妣生辰則亦依事生之禮盛設別祭自己生日則追思劬勞之恩別行茶禮此數段即古禮外義起而行者也觀其家禮編末自叙之文有曰喪制之禮人道之始終前賢所著詳且備矣而其中飯含明器二事雖出於古人不忍其口之虛不忍死其親之意而於某之心終有所不安者他日某喪勿用此禮其後辛丑之喪諸孤不敢違其遺意遂廢而不行此一段雖古禮亦有不行者也蓋府君之七十年竭力而盡誠者只在於奉祭祀一事家廟上食既是古今人家之所未行而每值考妣忌則一月行素祖曾以上遠代之忌必行三日素至篤老而猶不輟祭禮則以晦齋李彥迪奉先雜儀佔俸齋金宗直葬遵錄果谷擊蒙要訣參酌攷定爲一家之法是時金沙溪喪禮備要未出人各異禮家各異規也府君以是爲憂一依朱文公丘壇山兩家之禮參以時俗之所宜訂以諸儒之所纂積年編摩手成一部家禮至今印行于世人家多有依行者今以備要之書互見則綱領節目無甚異同惟居廬一節乃備要所無也禮學之精深見識之博洽於是乎益驗矣觀乎逐年日記中壬辰癸巳所錄則日日首書大駕之在何地國家之有何故然後次及於私事是蓋朱夫子帝在房州之意而憂時向國之忱亦可見其一段也且舊藏國忌帖下端見有手題者曰某自少時每值國忌則例爲行素而七十以後氣力消耗非肉則食不能下咽故只行 中仁明三宗之素其餘則皆未強行傷哉老也又於三宗忌日所書之下有題曰白髮小臣海西之一野民也曾歷 三宗之世而躬服其喪故茲就帖中別錄其昇遐月日而行其齋素以表其於戲不忘之意其亦古人獻芹曝之類也歟若其事業則位卑職疎固無布施之及于民國而內外居官二十四年一以至誠奉職爲務少無慢忽塞責底意其在兩邑也多有澤民革弊之政而辛卯建儲之疏見得自別發已陳弊之疏慮思周詳若使秉翁南臺之議不爲宋應澁之沮却而得以周旋於獻替之地則其言議謀猷之發於誠意見於事爲者豈但已乎平生不求聞達不事交遊故其不知者則不過以爲一鄉之善士而其知之者
監察庚寅春出爲殷山縣監居官行政一如河陽時而以邑俗尙武事故崇儒之政一倍加意一境人士稍知爲學之方向辛卯春 聖上遇災求言府君應旨陳疏深勉脩省之實而先言以敬之一字爲一心之主公之一字爲政治之本勤咨訪以廣聰明好學文以崇德業處九重而念民之不庇於風雨對八珍而念民之不足於糠粃服輕暖則念蠶婦之赤立臨宴享則念田家之辛苦官房無私愛左右無偏恩王子公翁主第宅亦毋得越法法制以傷民力繼言早建 世子以定國本者乃是宗社之至計國家之大事而今日朝廷之上無一人抗言而請建臣切慨然也末言本道民瘼數三條以附救弊之策首尾數千言勤勤懇懇深得格君獻替之本而及其疏到也政院以建儲一事爲 聖心之所厭聞退却而不以聞稍後松江鄭相國激獨以建儲陳疏遭譴罰始知忠良之爲國湮處所見相符也是年冬解歸鄉廬府君素有宿疾篤老以後諸症迭欲辛丑四月二十四日損館享年八十有一葬于鳳嘔山壬坐之原嗚呼府君身貌肥碩氣質淳慤心德之忠厚誠孝之純篤寔出於天賦之自然而好學以克其操好禮以檢其身蔚然爲名世之宏儒其爲學不資於師友而只務心得不專於口耳而只要躬行處心則以至誠不欺爲本修行則以忠信篤敬爲基居家盡事親之道居官盡事君之道惟孳孳爲善而已其爲禮酌古通今本之人情情之所安雖古禮所無或有義起而行者情之所不安則雖古禮亦有不行者觀其所著家禮祠堂條有曰禮云晨省昏定爲人子者所當依事生之禮而禮只有晨謁之文未有夕謁之節無乃禮有所未備者乎每晨早起梳頭盥洗詣家廟再拜夕時亦行再拜又曰禮云出告反而爲人子者所當依事生之禮而人之出入有遠近久速亦宜有分別之節也每日瞻謁之外經宿而歸則焚香再拜而已經旬以上則焚香再拜後必有告辭告畢又再拜歸亦如之經月而歸則先再拜於階下升自阼階焚香有告辭告畢再拜降復位再拜並皆裁成節目爲常行之規且府君乃支孫也不祭祖以上只奉考妣兩位朝夕上食之禮終身不	則淡知而傾慕無不心誠好之如安楓崖敏學洪拙齋聖民鄭相國芝衍李鳴谷山甫金牧使悌甲數三公最相知心有逐年所記幾許冊而多散失今見存十數卷而已居家行事也在官職務也朋儕過從也遠近出行也靡不隨事隨記蓋自溫公無不可對人言之意今於二百年後遺錄之編成者莫非此記中考據而當初所記出於自筆故略略說去太沒其實此則觀之者自可以推測矣配尉珍張氏世憲女禮曹判書續六代孫仙槎府院君稱悌后事府君克盡柔順之道壺範備具先府君十年卒于辛卯十二月八日翌年春葬于同原與府君爲雙墓焉 五代孫 通政大夫 承政院同副承旨 光宇 謹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적복積福 남촌공 현은산일기 을곡李珣교류 송강鄭澈	1 극極	태시 太始	두찬 斗燦	명익 溟翼	1 광우光宇 공조참의 계자系子	영조永祚 생원 (1722~)									
					3 正宇정우 通政大夫 통정대부	2 重祚중조 持平지평	1 漢箕 한기	1 孝根 효근							
				서익 瑞翼	1 광우光宇 출계명익										
					3 덕우德宇	응조 膺祚	한장 漢章 (1807~)	경근 敬根	의섭 義燮 (1847~)	기윤 耆尹 (1881~)	3 태진泰鎭 육군대령 측지測地부장 8수보서문작성	승원 承元 (1956~)			
	2 械식	2 玉善 옥선	1 有賢 유현	1 尙天 상천	1 徵宇 징우	1 益珪 익규	1 漢弼 한필	1 彰根 창근	1 壽燮 수섭	4 耆永 기영	1 鎭一진일 소일昭一	1 明涉 명섭			
	3 楫집	1 太初 태초	1 斗燾 두소												

태시 太始, 17세, 적복(積福)의 손자, 고성현령(固城縣令), 죽산부사(竹山府使)

조선왕조실록 인조 2년 갑자(1624) 2월 6일(경인)
국청 죄인 노적·정탁·정호선 등을 방면하다. 죄인 정찬을 처형하다
국청(鞫廳)이 갇혀 있는 죄인을 논단(論斷)한 것을 따로 기록하여 아뢰면서, 노적(盧積)·정탁(丁濯)·정호선(丁好善)·신계업(申啓業)·조사언(趙士彦)·은생(銀生)·<u>현태시(玄太始)</u>·박종립(朴終立)·한흔(韓訢)·이충길(李忠吉)은 방면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가두어 두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으나 한흔·이충길은 우선 가두어 두게 하였다. 국청이 또 ‘한흔을 그대로 가두어 둔다면 윤안형(尹安亨)도 마찬가지로 상변한 사람으로서 모의에 간여한 것이 가장 주밀하니 먼저 방면해서는 안된다.’고 계청하니, 모두 그대로 가두어 두게 하였다. 노적·정탁은 처음에 적의 공초에 나왔으나 곧 석방되었는데 대론(臺論)에 따라서 다시 가두었다. 신계업·조사언·박종립 등은 정석필(丁碩弼)의 공초에 나왔다. 승복한 죄인 정찬(鄭燦)을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처형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6년 무진(1628) 10월 7일(갑오) 맑음	
평안도에 부방하러 가는 전사 전초관 이성록의 군사 등에게 걸옷감 보목 등을 제공하고 전례대로 시재하여 논상할 것을 청하는 훈련도감의 계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평안도에 부방(赴防)하러 가는 군사는 전사 전초관(前司前哨官) 이성록(李成祿)의 군사 100명, 좌사 우초관(左司右哨官) 현대시(玄太始)의 군사 100명, 전사 좌초관(前司左哨官) 김술(金述)의 군사 100명, 중초관(中哨官) 김영복(金永福)의 군사 100명, 좌사 전초관(左司前哨官) 이원경(李元慶)의 군사 100명, 도합 500명을 10월 22일에 보낼 것인데, 걸옷감 보목(步木) 각 1필, 3인당 쇄마(刷馬) 1필, 군기(軍器)를 싣고 갈 말 초(哨)당 각 4필을 병조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낙복지(落幅紙)는 호조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며, 부방하는 군사는 으레 별도로 시재(試才)하여 논상하여 보내는데 이번에 서쪽으로 부방하러 가는 군사도 전례대로 시재하여 논상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 《훈국등록(訓局謄錄)》에 의거함 -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정축(1637) 6월 22일(기미) 흐림
도목 정사가 있었다
21일과 22일에 도목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김상(金尙)을 승지로, 이필영(李必榮)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이민수(李敏樹)를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오달승(吳達升)을 인동 부사(仁同府使)로, 허직(許稷)을 파주 목사(坡州牧使)로, 이명(李溟)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이경채(李慶綵)를 영암 군수(靈巖郡守)로, 현대시(玄太始)를 고성 현령(固城縣令)으로, 정치화(鄭致和)를 이조 좌랑으로, 김여생(金麗生)을 은율 현감(殷栗縣監)으로, 채몽익(蔡夢翼)을 결성 현감(結城縣監)으로(중략)이순명(李舜命)을 부사과(副司果)로, 이섬(李暹)을 사정(司正)으로, 김여온(金汝溫)을 경상우도 수군우후(慶尙右道水軍虞候)로, 곽종문(郭宗文)을 무검으로, 신익량(申翊亮)을 부사직으로 삼았다.

죽산부사 현대시(玄太始), 배천 군수 홍처윤(洪處尹), 강진 현감 이유원(李惟源)이 아직 인사를 올리자, 상이 인견하고 처윤에게 이르기를,
“경연의 신하는 외직에 보임할 수 없지만 아버이를 위해 봉양을 구하므로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올해의 기근이 이와 같으니 한 고을을 가지고 봉양하더라도 또한 뜻에 흡족하게 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臣亦宜自相策勵也。屢願曰：近聞駙馬局鞍轡厝制，健玲瓏未始知否？上微哂曰：實無是事也。卿若不言子何以知之？近觀疏章有曲逆斯開之語，未知內閣書手傳播於外耶？問夏曰：近日宮闈不嚴，內言既由曲逆而出，則外省亦必由曲逆而入。曲逆之間豈可忽哉！此非細故也。上曰：頃者予時謂會泰來在近代云者偶然，而數月後見陳文粹子則謂予何從得乎？云以予推之則流言之不實亦可知矣。（竹山府按）**袁太始**，（川郡守）陞慶州廉津縣監李惟源歸朝。上引見讀歲序曰：經綏之臣不可補外，而高覲乞養不得不許，但盛亂此時告竣之憂亦恐不能稱意矣。（戊子）上召見大臣及備官諸臣，乃議政事。時白曰：院無干智病如此，而領相高不出任，自上引見大臣及備官諸臣，乃議政事。時白曰：院無干智病如此，而領相高不出任，自上引見大臣及備官諸臣，乃議政事。時白曰：院無干智病如此，而領相高不出任，自上引見大臣及備官諸臣，乃議政事。

- 8 -

되었다. 정언·장령·헌납·집의·사간 등 주로 언관직을 역임하였다. 1774년 헌납으로 과중한 부세, 족징(族徵), 환곡의 불편, 권세가의 검병 등 4가지 민폐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균등한 토지소유를 위한 양전의 실시, 통환(統還)의 규정 실시, 사창(社倉)의 실시, 한전법(限田法)을 실시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1765년 나이가 많으면서 하위직에 침체된 인물을 특별히 승진시키는 조처에 따라 공조참의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현광우의 식년시 진사 합격 기록 [진사] 경종(景宗) 3년(172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59위(89/100) 자(字) 여대(汝大) 생년 병자(丙子) 1696년 (숙종 22) 합격연령 28세 본인본관 순천(順天) 거주지 연안(延安) 선발인원 100명 [一等5 · 二等25 · 三等70] 전력 유학(幼學) 기타 연벽(聯壁[兄弟同榜]) : 弟 玄啓宇 부모구존 자시하(慈侍下) 생부모구존 구경하(具慶下) [부(父)] 성명:현명익(玄溟翼) 관직:학생(學生) [생부(生父)] 성명:현서익(玄瑞翼)[進] 과거:진사(進士) [안향(鴈行)] 양가 제(弟):현처우(玄處宇) 양가 제(弟):현기우(玄基宇) 본생가 제(弟):현계우(玄啓宇)[進] 본생가 제(弟):현홍우(玄弘宇)	『계묘식년사마방목(癸卯式年司馬榜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B13LB-17])
---	---

승정원일기 등에 보이는 광우의 기록

승정원일기 전체 (5)				
번호	왕대	월	일	기사
1	영조 1년 을사(1725, 흥정)	4월	11일(무인) 맑음	이이(李瑄)를 무함한 윤선거(尹宣舉)의 관작을 삭탈하고 원우를 폐질할 것 등을 청하는 황해도 유학 윤수갑(尹壽甲) 등의 상소 · 박동화(朴東華) · 김명덕(金命德) · 강시형(姜時亨) · 김하삼(金夏三) · 박동원(朴東元) · 강필대(姜必大) · 윤서(尹僉) · 강시겸(姜時謙) · 박동로(朴東老) · 현광우(玄光宇) · 송상하(宋相夏) · 고배후(高配厚) · 최석후(崔錫厚) · 황진후(黃鎭厚) · 박동필(朴東必)
2	영조 1년 을사(1725, 흥정)	6월	17일(계미) 아침에는 흐리고 저녁에는 맑음	이광좌(李光佐)를 역적의 고수로 토죄할 것을 청하는 성균관 진사 조흥림(趙興林) 등의 상소 · 곽동장(郭東章) · 박시진(朴時鎭) · 상원 최인(崔愼) · 안치량(安致亮) · 이종옥(李重郁) · 진사 안구(安庚) · 상원 이만화(李萬和) · 신명좌(申命佐) · 한재(韓濟) · 현광우(玄光宇) · 이명설(李命處) · 신집(申集) · 전유직(田有稷) · 임만계(林萬桂) ·
3	영조 11년 을묘(1735, 흥정)	11월	1일(병신) 맑음	두 선정을 무함한 신치운의 죄를 바로잡아 지방으로 내치는 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는 관학 유생인 진사 이규보 등의 연명 상소 (黃維河) · 소대진(蘇大晉) · 정유(鄭維) · 현광우(玄光宇) · 고릉성(高夢聖) · 최귀서(崔龜瑞) · 최기(崔期) · 신형(申衡) · 유언걸(兪彦賈) · 김이건(金履健) · 안중형(安重衡) · 정한중(鄭漢宗) · 이발(李發) · 조무경(趙愚慶) · 신명관(申命觀) · 이광후(李光

서명	권차	문체	기사	저/편/필자	간행년도
일기청등록(日記廳騰錄)	改修日記廳錄 乾隆十三年八月十一日	[傳敦 · 啓辭 等]		일기청(日記廳)	미상
之察任，何如？傳曰：允。 丙寅五月二十六日 啓曰：本廳郎廳十員差下事，命下矣。弘文館修撰吳彥儒，世子侍講院說書林錫憲，吏曹佐郎黃景源，兵曹佐郎李得宗，禮曹佐郎 玄光宇 ，成均館典籍權崇，明陵別檢任璋，長寧殿別檢朴師訥，權知承文院副正李顯祚，崔台衡差下，使之察任，... 何如？傳曰：允。 丙寅六月初一日 啓曰：本廳郎廳黃景源，朴師訥，身病癉重，勢難察任，趙雲達，吳彥儒， 玄光宇 在外，書役極爲苟覯，并改差，其代以掌樂院正趙明鼎，禮曹佐郎李朝望，成均館典籍南雲老，崔鳴玉，孝陵別檢閔師弘差下，使之察任，何如？傳曰：允。 丙寅六月初九日 [변역문]					
일기청등록(日記廳騰錄)	改修日記廳錄 乾隆十三年八月十一日	甘結狀		일기청(日記廳)	미상
佐郎黃景源，兵曹佐郎李得宗，禮曹佐郎 玄光宇 ，成均館典籍權崇，明陵別檢任璋，長寧殿別檢朴師訥，承文副正李顯祚，崔台衡，月課，殿經，朔試射爲等如，啓下爲有置，除本司仕，凡公會勿參，差衆安徐，除服制，式暇，一依啓下節目舉行事。吏曹，兵曹，弘文館，侍講院，禮曹，成均館 [변역문]					

[주-D013] 어떤 좌천되었는데 : 1748년(영조24, 51세) 윤7월에 이조 참의로서 당인(黨人)을 천거했다는 이유로 좌천되었다. 《영조실록》 24년 7월 18일 기사에 의하면, 장령 **현광우(玄光宇)**를 장기 현감(長鬐縣監)에 이조 참의 이천보를 고부 군수로 좌천시켰는데, **현광우**가 대직(臺職)으로 들어간 것은 이천보가 추천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현광우**는 동월 13일에 장령에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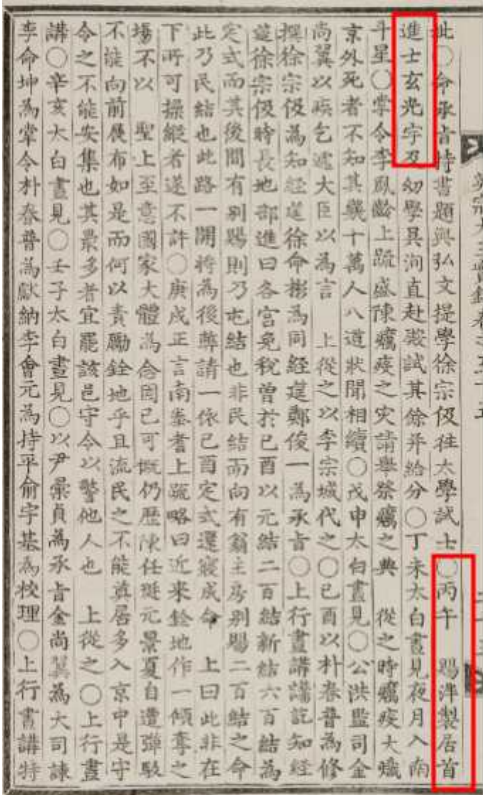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영조 18년 임술(1742) 4월 17일(병오)

반제에서 성적에 따라 급분하다

반제(泮製)에서 으뜸을 차지한 진사 **현광우(玄光宇)**와 유학(幼學) 오순(吳洵)에게는 직부 전시(直赴殿試)를 내리고, 그 나머지에게는 모두 급분(給分)하였다.

[주-D001] 급분(給分):
문과 초시(文科初試)에서 시험 성적이 합격 점수에는 미달하였으나 성적이 비교적 양호한 자에 대하여 적당한 분수(分數)를 주었다가, 다음 시험의 성적과 합산하여 점수에 달하면 초시 합격자와 같은 자격으로 복시(覆試)에 응하게 하던 것.

”



현광우의 정시 문과 합격 기록

[문과] 영조(英祖) 19년(1743) 계해(癸亥) 정시(庭試) 병과(丙科) 17위(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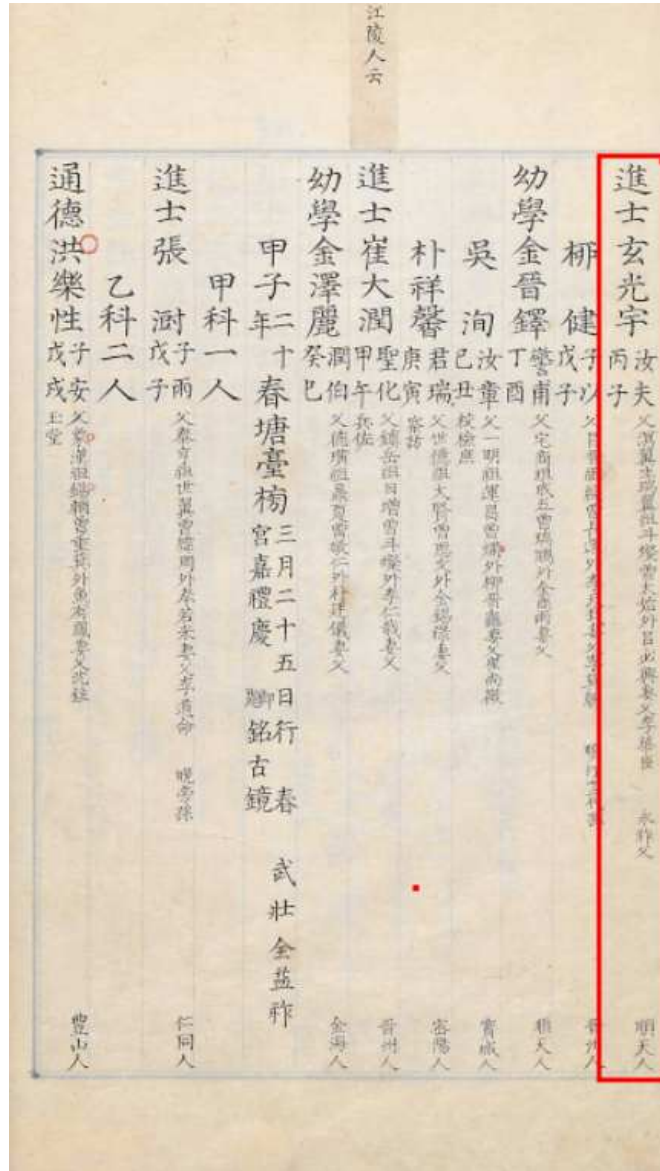
자(字) 여부(汝夫)
 병자(丙子) 1696년 (숙종 22)
 생년 48세
 합격연령 22)
 본인본관 순천(順天)
 거주지 연안(延安) 【補】 (주1)

선발인원 26명 [甲1 · 乙2 · 丙23]
 전력 진사(進士)
 문과시제 부(賦) : 백량어지(百兩御之)

[부(父)]
 성명: 현명익(玄溟翼)
 [생부(生父)]
 성명: 현서익(玄瑞翼) [進]
 [조부(祖父)]
 성명: 현두찬(玄斗燦)
 [증조부(曾祖父)]
 성명: 현대시(玄太始)
 [외조부(外祖父)]
 성명: 여필흥(呂必興)
 본관: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이화신(李華臣)
 본관: 미상(未詳)
 [안향(鴈行)]
 양가 제(弟): 현처우(玄處宇) 【補】
 양가 제(弟): 현기우(玄基宇) 【補】
 본생가 제(弟): 현계우(玄啓宇) [進] 【補】
 본생가 제(弟): 현홍우(玄弘宇) 【補】 (주2)

『계묘식년사마방목(癸卯式年司馬榜目)』 (한국학

[가족과거]
 자(子): 현영조(玄永祚)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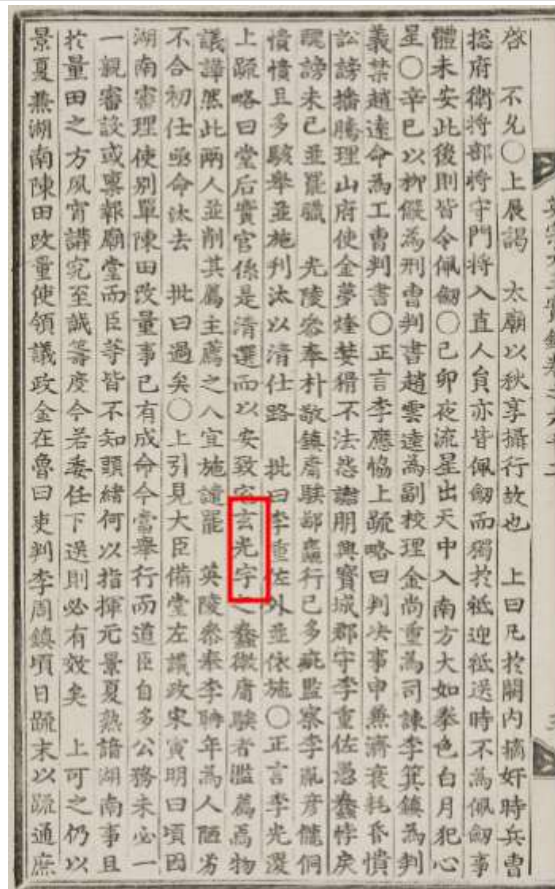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규장각한국학연구원국립중앙도서관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卷之十五 (규장각한국학연구
 구원 [奎106])

조선왕조실록 영조 21년 을축(1745) 7월 11일(신사)

정언 이광직의 상소하여 안치택 등을 탄핵하다

정언 이광직(李光潐)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당후 실관(堂后實官)은 청선(淸選)에 속하는데, 안치택(安致宅)과 현광우(玄光宇) 같은 우매하고 용렬한 사람을 외람되이 추천하여 물의(物議)가 시끄럽습니다. 이 두 사람을 모두 그 추천에서 지워버리고 추천한 사람도 책임을 물어 파직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릉 참봉(英陵參奉) 이담년(李聃年)은 위인이 누열(陋劣)하여 초사(初仕)에 합당하지 않으니, 빨리 파직시키도록 명하소서.”
 하니, 지나치다고 비답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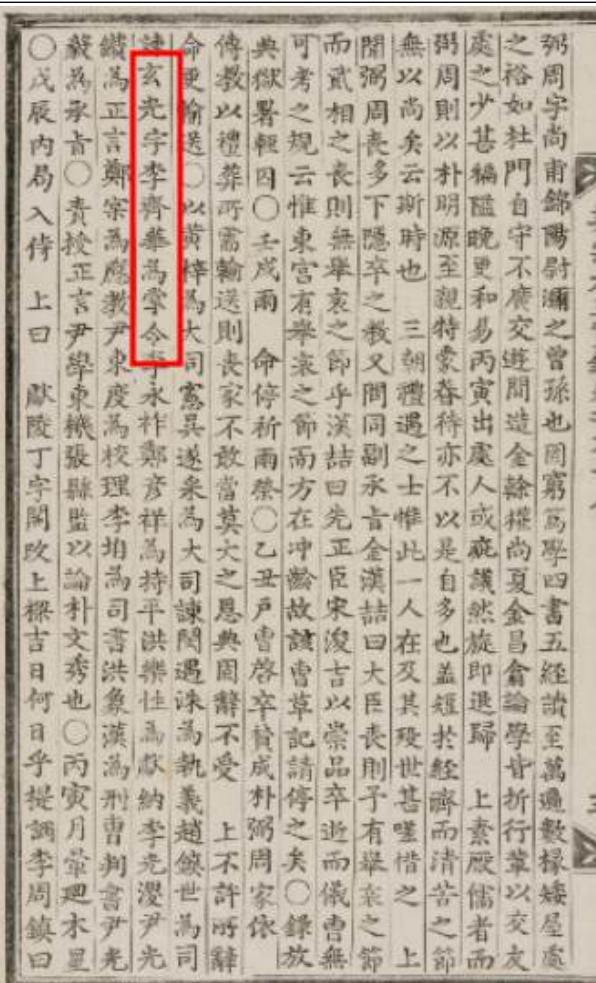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영조 24년 무진(1748) 윤 7월 13일(을축)

황재·오수채·민우수·조진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재(黃梓)를 대사헌으로, 오수채(吳遂采)를 대사간으로, 민우수(閔遇洙)를 집의로, 조진세(趙鎭世)를 사간으로, 현광우(玄光宇)·이제화(李齊華)를 장령으로, 이영조(李永祚)·정언상(鄭彦祥)을 지평으로, 홍낙성(洪樂性)을 헌납으로, 이광직(李光潐)·윤광찬(尹光縝)을 정언으로, 정실(鄭實)을 응교로, 윤동도(尹東度)를 교리로, 이계(李埈)를 사서로, 홍상한(洪象漢)을 형조 판서로, 윤광의(尹光毅)를 승지로 삼았다.

”



정우 正宇, 20세. 광우(光宇)의 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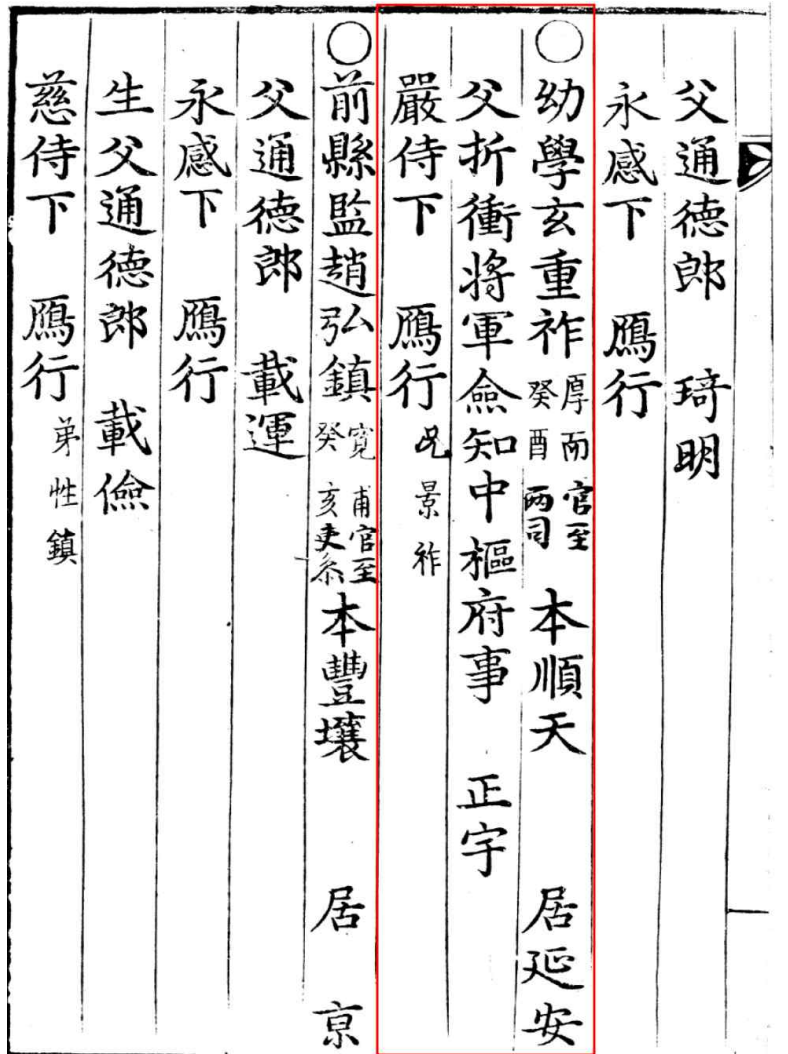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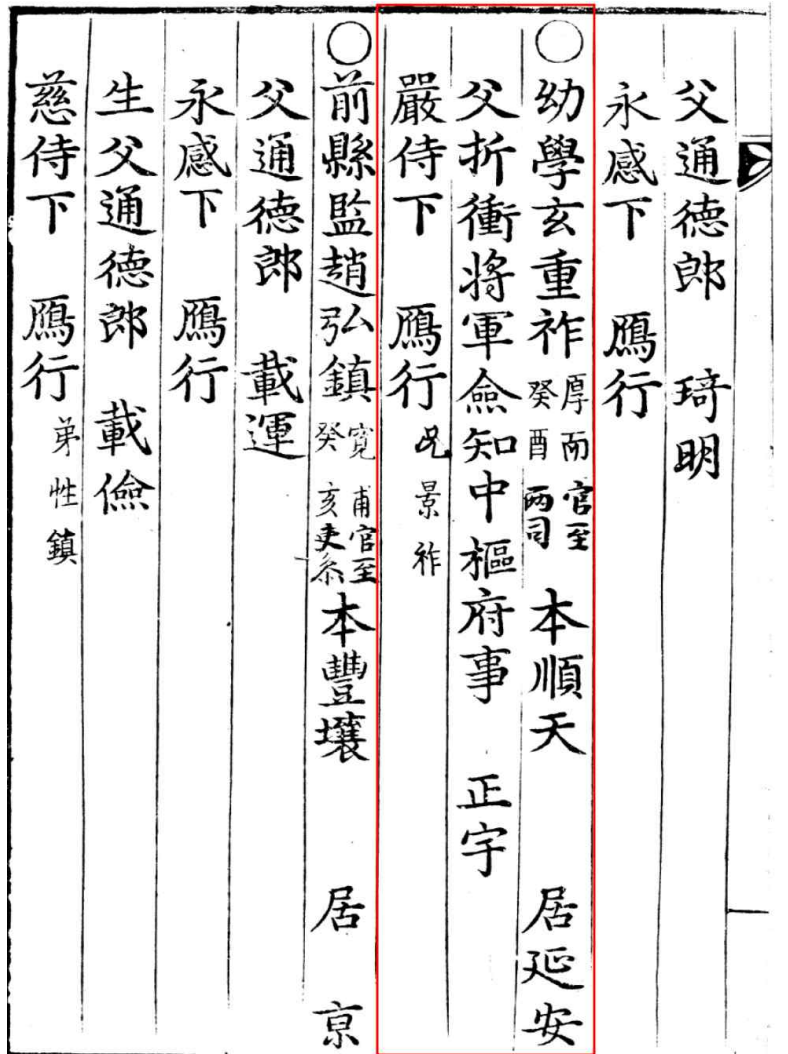
자 여순(汝純), 1718년 숙종(肅宗)무술(戊戌)생, 통정대부(通政大夫)

일성록 > 정조 > 정조 11년 정미 > 1월 4일 > (1787)	11-01-04[05]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 참의 이시수(李時秀)가 나왔다.
○ 이승호(李崇祐)·홍수보(洪秀輔)를 승지로, 김종정(金鍾正)을 판돈녕부사로, 송재경(宋載經)을 판윤으로, 홍병찬(洪秉纘)을 좌윤으로, 정경순(鄭景淳)을 우윤으로 삼고, - 송재경, 홍병찬, 정경순은 승품(陞品)이다. - 이의행(李義行)을 완성군(完城君)으로 삼았다. - 승습(承襲)이다. - 사직 이의로(李宜老)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를 더하고, - 나이가 70으로, 시종신 전 교리 이보천(李普天)의 아비이다. - 학생 <u>현정우(玄正宇)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를 더하였다.</u> - 나이가 70으로, 시종신 전 지평 <u>현중조(玄重祚)의 아비</u> 이다.	以李崇祐 洪秀輔爲承旨。金鍾正爲判敦寧。宋載經爲判尹。洪秉纘爲左尹。鄭景淳爲右尹。載經 秉纘 景淳 陞品也。李義行爲完城君。承襲也。司直 李宜老加嘉善。年七十。侍從臣。前校理 李普天父。學生 <u>玄正宇</u> 。加 <u>通政</u> 。年七十。侍從臣前持平 玄重祚父。

중조 重祚, 21세.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순천(順天)이다. 자 후이(厚而), 1753년 영조29년계유(癸酉)생, 1783년(정조7년) 증광시에서 병과로 문과 급제, 역직(歷職) 현풍현감(玄風縣監), 태안군수(泰安郡守),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을 역임했다.

1791년(정조15년)에는 장령(掌令)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사헌부(司憲府)의 서리(胥吏)가 백성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중조(玄重祚)는 관원을 단속하지 못한 죄목이 더해져서 유배를 당하였다. 이후 사면되어 재차 장령 및 지평(持平)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804년(순조4년)에는 대사간(大司諫) 이문회(李文會)로부터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흥모를 꾸민다는 탄핵을 받았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재차 김해부(金海府)로 유배를 당하였다.

현중조의 증광시 합격 기록 [문과] 정조(正祖) 7년(1783) 계묘(癸卯)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5위 (15/38) • 생년 계유(癸酉) 1753년 (영조 29) • 합격연령 31세 • 본인본관 순천(順天) • 거주지 연안(延安) [이력사항] • 선발인원 38명 [甲3・乙7・丙28] • 전력 유학(幼學) • 문과시제 어제(御題) 전(箋) : 의본조종친문무백관등하어상보감칭경지일거세실제향지례강원자경호지명(擬本朝宗親文武百官等賀於上賓臨稱慶之日舉世室諸享之禮降元子定號之命) [부(父)] 성명 : 현정우(玄正宇) [조부(祖父)] 성명 : 현명익(玄溟翼) [증조부(曾祖父)] 성명 : 현두찬(玄斗燦) [외조부(外祖父)] 성명 : 정형복(鄭亨復)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안석기(安錫琦)【補】(주1) <td data-bbox="708 197 1500 1534"></td>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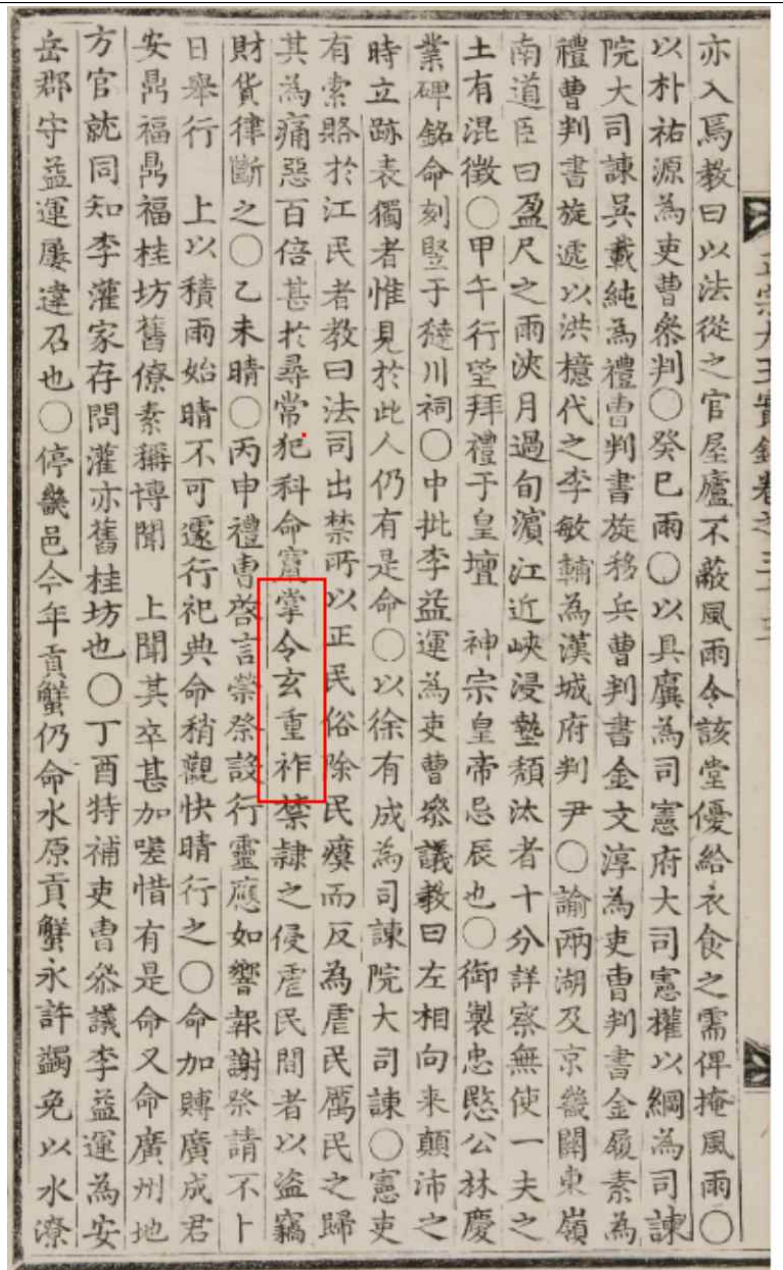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 정조실록 > 정조 15년 신해 > 7월 21일 > 최종정보 정조 15년 신해(1791) 7월 21일(갑오) 15-07-21[05] 헌부의 서리가 강가의 백성에게 뇌물을 요구한 일로 장령 현중조를 유배시키다 헌부의 서리 중에 강가의 백성에게 뇌물을 요구한 자가 있었다. 전교하기를, “법사(法司)에서 나가 불법을 금하는	
--	--

것은 백성의 풍속을 바로잡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도리어 백성을 괴롭히고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통탄스럽고 가증스러움이 보통의 범죄보다 백 배나 더하다.”

하고, 장령 **현중조(玄重祚)**를 유배시키고 금부의 하인으로서 민간을 침해하는 자는 재물을 훔친 도둑을 처벌하는 율로 단죄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33면

○憲吏有索賂於江民者。 教曰：“法司出禁，所以正民俗、除民瘼，而反爲虐民厲民之歸，其爲痛惡，百倍甚於尋常犯科”，命竄掌令**玄重祚**，禁隸之侵虐民間者，以盜竊財貨律斷之。



태진 泰鎭, 26세. (1924-2012)

육군대령, 초대 육군 측지(測地)부대장으로 5만분의1, 100만분의 1지도 제작, 국가유공자. 대중회 고문, 대동보8수보 서문 작성(2000년)

진일 鎭一, 2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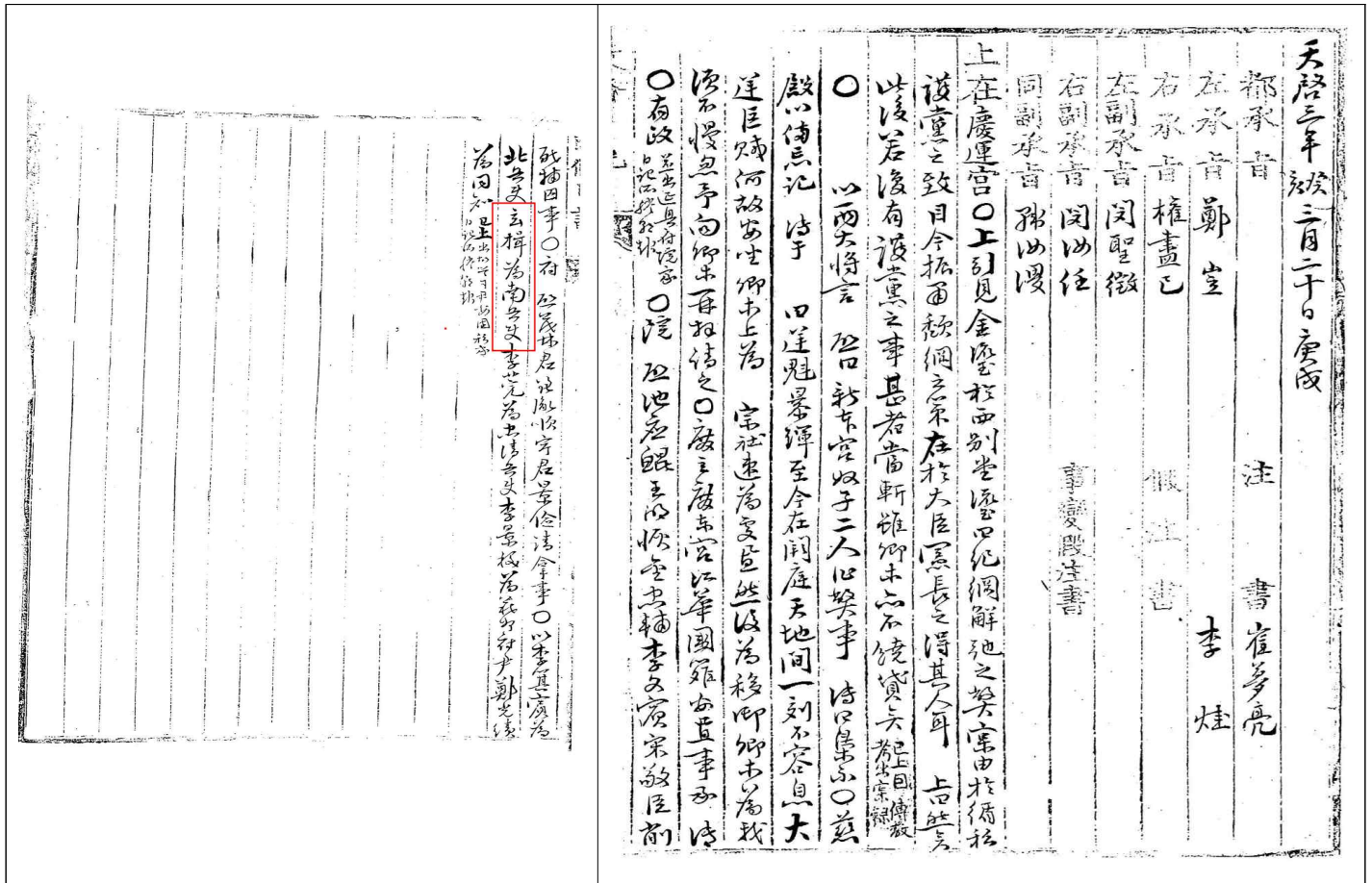
자 소일(昭一), 1942년(壬午)생, (주)인천약품 대표회장, 대중회 부회장, 지도위원

집 楫, 16세.

자 여제(汝齊), 적복의 3남, 1568년 (선조2년 무진戊辰)생, 무자년(1588년) 알성시 무과 합격(戊子登謁聖武科), 함경도첨사, 무산첨사, 제주목사, 남도병사, 지중추부사, 호서절도사, 공홍병사 등을 역임한 무신. 1599년(선조 32) 위원군수(渭原郡守)를 거쳐 함경도첨사·무산첨사를 지냈다. 1610년(광해군 2) 온성부사에 임명되어 북쪽의 변방을 담당하다가 제주목사로 부임받아 다시 남쪽으로 부임하였다. 그 뒤 남도병사를 거쳐 1616년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618년 이항복(李恒福)의 죽음을 ‘졸서(卒逝)’로 표현했다 하여 탄핵을 받아 추고되었으나 2년 후에 다시 호서절도사로 임명되어 외지로 나갔다. 1621년 공홍병사(公洪兵使)를 지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난 이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도원수 장만(張晩)과 함께 중군에 임명되어 토벌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괄의 난에 연루되었다고 모함을 받아 1624년(인조 2) 참형에 처해졌으며, 1627년(인조 5)에 누명을 벗고 관작이 복구되었다. 무산첨사와 제주목사로 있을 때는 군대를 잘 훈련시키고 성지를 부지런히 수리한다는 평을 들었으나 말년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을 수탈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며, 무신으로서 이항복의 사당을 지어 제사 지낼 것을 청하였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족보의 기록을 보면, (光海朝鰲城李恒福沒于配所公送輓以故削管其詩曰鰲柱擎天天妥帖鰲望柱絕奈天何北鳳送吹因山雨雨未多於我淚多). 풀이하면, 광해군 때 오성 이항복이 귀양처에서 죽자 공이 만사(輓飭: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글)를 보냈다. 그래서 관직을 삭탈당했다.(管은 官의 오타로 보임). 그 시의 내용은 ‘오성의 기둥이 하늘을 떠받드니 하늘은 별 탈이 없었다. 오성이 기둥이 꺾이기를 바라니 하늘을 어찌하리오. 북쪽 봉황이 입김을 불어오니 산에 비가 내린다. 비는 나의 눈물이 많은 것에 비하니 오히려 적을 뿐’이라는 내용이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이다.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년 계해 > 3월 20일 (1623)	01-03-20[09] 이기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기빈(李箕賓)을 북병사(北兵使)로, 현집(玄楫)을 남병사(南兵使)로, 이완(李莞)을 충청 병사로, 이경직(李景稷)을 의주 부윤으로, 정광적(鄭光績)을 동지(同知)로 삼았다. - 이상은 고 감사 윤안국 집안의 일기에 등사된 조보에 의거함 -	○ 以李箕賓爲北兵使, 玄楫爲南兵使, 李莞爲忠清兵使, 李景稷爲義州府尹, 鄭光績爲同知. 已上出故監司尹安國私家日記所謄朝報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인조실록(仁祖實錄)』

태초 太初, 17세.

자 이혼(而混), 집(楫)의 장남, 1591년 선조24년 신묘(辛卯)생, 을묘년(1615년)에 무과 합격(乙卯登武科), 온성부사(穩城府使), 통정대부(通政大夫), 준양부사(淮陽府使) 겸 강원도방어사(兼江原道防禦使)를 역임했다.

학진 學鎭, 26세, 1960년생, 피플라이프 대표, 대중회 부회장

덕찬 德贊, 27세, 1951년생, 덕승종합건설 회장, 대중회 부회장

지연 至硯美子, 30세, 1949년생, 한양종합기술연구원 회장, 대중회 부회장

종상 宗相, 30세, 자 인수(仁秀), 1953년생, 영암군 공보실장(서기관), 대중회 부회장

영이 英二, 26세, 1943년생,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장, 대종회 이사

종철 槽鐵, 27세, 1989년생, 대종회 이사

인근 仁根, 28세, 1955년생, 부평그린시티(주) 대표, 대종회 이사

성호 聖鎬, 28세, 1963년생, 경민대학교 교수, 대종회 이사

승남 勝男, 28세, 1983년생, 아모렉스리조트 대표, 대종회 이사